

第29回 甲午東學文化祭

甲午東學革命紀念 學術討論會

○ 日時:1996. 5. 11(土) 13:30

○ 場所:井邑市 第2廳舍(舊井邑郡廳)講堂

○ 主催:甲午東學革命紀念事業會

○ 後援:東亞日報社

甲午東學革命紀念事業會

第29回 甲午東學文化祭

甲午東學革命紀念 學術討論會

- 日時:1996. 5. 11(土) 13:30
- 場所:井邑市 第2廳舍(舊井邑郡廳)講堂
- 主催:甲午東學革命紀念事業會
- 後援:東亞日報社

甲午東學革命紀念事業會

第29回 甲午東學文化祭

甲午東學紀念 學術討論會

<主題發表>

- 司會：朴 孟 洙(靈山大 教授)
李 炫 熙(誠信女大 教授)
 :東學革命과 반체제·반침략운동
- 申 福 龍(建國大 教授)
 :甲午農民革命의 시대구분과 호칭
- 崔 玄 植(井邑文化院長)
 :甲午東學革命의 發祥地 考察
 -白山起包와 茂長起包說의 검토
- 李 相 寔(全南大 教授)
 :東學農民革命의 繼承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討 論>

- 司會：申 淳 鐵(圓光大 教授)
- 金 淇 周(湖南大 學長)
- 申 榮 祐(忠北大 教授)
- 朴 孟 洙(靈山大 教授)
- 禹 潤(西江大 講師)
- 李 眞 榮(全北大 講師)

目 次

- 東學革命과 반체제·반침략운동.....李炫熙 7
- 甲午東學革命의 시대 구분과호칭.....申福龍 21
- 甲午東學革命의 發祥地 考察.....崔玄植 31
-白山起包와 茂長起包說의 검토
- 東學農民革命의 繼承.....李相寔 45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東學革命과 反体制・反侵略運動

李炫熙 (성신여대 교수)

1. 序論

1894년 초 일어난 동학혁명은 제1차로 반체제운동과 제2차로 반침략 항일민중 구국투쟁을 일으킴으로 한국 민족운동사에 있어서 최초의 민중에 의한 항일구국운동이라는 시발점을 형성하게 되었다.

동학은 창도되던 1860년대를 거쳐 진보회·일진회등으로 인한 혼동된 시대적 고난을 극복한 뒤 1905년 천도교로 개편 발전되었다. 1919년 3·1 민주혁명을 주도적으로 일으켜¹⁾ 조국의 독립을 앞당기고자 했던 동학-천도교는 민족종교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표출하였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신앙차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반봉건과 구국운동인 동시에 민중구원 그리고 외세배격과 주체적 민족성의 강조라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 근현대사는 동학의 역사와 함께 봉건적 압제와 외세의 침략이라는 고난에 저항하면서 시종되었다. 많은 민중들이 삶의 목표를 잃고 좌절하고 있을 때 혁명적 의식의 전환을 이룩한 동학이 앞장서서 고난의 압제를 타파하고 민중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1860년 崔濟愚에 의한 동학의 창도이후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학이 우리 근대사회의 변혁과 발전에 끼친 영향은 획기적인 것이었고 이것이 동학혁명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동학혁명에 나타난 반체제·반침략의 주체적인 저항의식은 인내천과 보국안민의식에 따라 이후 3·1혁명으로 발전되었다. 이어 계속된 민족운동의 전개로 항일구국사상과 민족자존의 맥락을 계승해 나갔다.

1) 崔玄植,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p.220

2. 東學革命의 背景과 淸·日의 侵略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도전해 오는 세력에 의하여 점차 봉건체제가 해체되어 갔다.

당시 국가지배층과 양반세도가문은 신분적 통치권력에 의해 농민들을 억압·수탈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변동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회모순만 가중시키고 있었다. 또한 1876년의 不平等한 개항이후 밀려오는 외세는 자본주의체제하의 자국 상품판매와 자본투자, 값싼 원료공급지의 획득을 위해 동양사회로의 침략적 도전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나라 안팎의 위기는 1890년대 들어 봉건적 모순과 정치 사회적 갈등, 사상적 부재현상등으로 격화되어 갔다. 이같은 위기상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 계층이 민족종교 동학이었다.²⁾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은 수운이 순도한 이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하자 1892년 삼례집회에서 대대적인 포교공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그들은 포교공인의 요구와 함께 외래종교의 배척과 외국상인의 축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미선교사의 출국과 기독교계 학교 재학생의 자진퇴학 등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배외관과 민족주체의식을 나타냈다.³⁾

이러한 배척적인 대외관은 보은대집회에서 강한 주체의식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들은 척왜양창의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국토는 오랑캐의 소굴화가 되었으니 동학교도는 우리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왜양을 한가지로 보았다. 이처럼 동학도의 대외관은 위정척사파의 민족정통성의 보전이라는 고정관념과 우리 것을 지키자는 주체성, 철저한 배외자립사상과 그 행동으로 일관되고 있다.⁴⁾

이와같은 동학사상과 조직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농민대중의 반체제·반침략혁명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2월 폭발한 동학혁명은 1895년까지 2차에 걸쳐 계속 일어났는데 첫번째는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접주 전봉준의 영도하에 폭

2) 이현희, 「동학혁명과 청일의 대응」 『근현대사 강좌』 한울 1994.통권 제5호 p.110

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30年 2月 27日

4) 『東京朝日新聞』 1893년 4월 18일

발한 민중항쟁이며, 두번째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충군애국의 일념에서 동학도 및 농민들이 규합하여 일으킨 항일민중구국투쟁이었다. 즉 동학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표면적 계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이 직접적인 동학도가 대부분인 농민봉기의 계기가 되었다.⁵⁾

1893년 12월 농민들은 군수의 탐학을 벗어나기 위하여 향반신분의 동학접주 녹두장군 전봉준(1854~1895)으로 하여금 관에 진정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그는 부친 전창혁과 함께 훈장으로서 학식을 갖추고 고부지방의 접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부군민의 착취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농민 수십명을 인솔하고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진정하고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유없이 두번이나 거척당하고 말았다. 이에 전봉준은 沙鉢通文을 작성하여 거사를 맹약하고 송두호의 가택에서 都所를 정한 뒤 조병갑의 처단, 군기창과 화약고의 점령, 탐관오리의 격정, 서울로 직향할 것 등 4가지의 실천강령을 재차 확인하였다.⁶⁾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등과 함께 거사하니 동학도보다 농민들이 더 많이 참가하였다.⁷⁾ 거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인근 주민들이 집결 참여하여 농민이 낀 동학도는 수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고부군청을 습격, 파괴하고 탐관오리배들을 잡아 들였으며, 관리들이 수탈한 수세곡식은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대중의 사기는 충천해졌다. 농민·노동자등 장정 중심으로 편제된 이 동학혁명군은 마항장터에 장막을 치고 정세를 관망 주시하였다.

한편 동학혁명군의 거사소식을 듣고 정부에서는 즉각 사태수습에 나섰으나⁸⁾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동학농민들을 탄압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자⁹⁾ 격분한 동학혁명군은 본격적으로 봉기하기 시작하였다. 전봉준은 4월 하순 보국안민의 기치하에 개혁의 의지를 보이면서 태인현의 동학도까지 참여시켜 요새지인 白山을 점령하였다. 이에 기세를 올려 금구·부안·고창등 여러 고을의 동학

5) 『東學亂記錄』 下卷 pp.520~522

6) 『나라사랑』 15권, 1974. pp.130~140

7) 『東學亂記錄』 下卷 p.525

8)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2월 15~19일

9) 崔玄植, 앞의 책 pp.46~50

도가 술선해서 농민까지도 가담시켜 혁명군화 하였다. 전봉준이 총대장으로, 손화중, 김개남이 총관령이 되어 4가지 강령을 걸고 倡義의 주체적인 국가의 기강 확립과 충군애국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였다.

그것은 인명과 재산의 보전, 외세 즉 일본의 축멸로 성도를 밝히며 서울로 올라가 권귀(양반)를 진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¹⁰⁾ 자신들을 주체적 민족역량 집결 세력임을 표방한 동학혁명군은 일반 농민대중의 동참을 호소 절규함으로써 대거 가담시켜 동학혁명이 어느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국적 충절에서 출발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거사가 동학도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국가의 근본인 민초의 근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격문중에는 '국가를 반석위에다 두고자 함이라'는 요지의 참뜻을 중점적으로 삼입하였는데 이는 보국안민(국태민안)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탐관오리의 숙청을 통한 반봉건 혁명의 성격과 아울러 외세의 배척이라는 자주자립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민중 동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고 절규하였다.¹¹⁾

이같은 보국안민과 충군 애국적 기세에 동참할 명분을 찾은 민중들은 동학도의 순수한 애국열정에 소외되지 않으려는 순박한 민족의식적 차원과 의도에서 대거가담, 민중세력을 확장시켰다.

그후 전라도 관찰사 김문현이 부안군청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접하자 3백여 명의 관군을 풀어 동학혁명군을 진압코자 기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황토현에서 참패당하였으며 승리한 동학혁명군의 사기는 충천하였다.¹²⁾ 이어 동학혁명군은 자유·정의·진리를 앞세운 외세배격 혁명이 승리하리라는 확신속에서 인근주민의 동참을 권유하였다. 농민혁명군은 정읍, 흥덕, 고창, 무장등지를 석권하고 함락한 지역마다 군청·창고를 습격 파괴하고 투옥된 동학도 및 일반 민중의 석방을 도왔으며 탐관오리의 포박과 착취된 미곡 등의 환부가 이어졌다. 이때 가는 곳마다 동학혁명군이 주창한 강령은 대체로 지켜져 단순한 민란형태의 수준에서 벗어나 민중의 존재를 터득하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승화되어 갔다.

10) 鄭喬, 『大韓季年史』 上, pp.73~76

11)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pp.110~112

12) 『東學亂記錄』 上, pp.160~165

이에 당황한 조선정부는 청국군대의 조선파견을 요청하였는데 조선의 파병요청만 오면 이를 기회로 군대파견은 물론 내정에 관여하여 한국내에서의 일·러세력을 제거견제하고 우위권을 장악할 계략을 갖고 있던 청의 이홍장은 5월 1일 북양수사제독 정여창으로 하여금 2척의 함정을 인천에 출동케 하고 육군 천5백명을 기선에 실어 인천으로 도착케 하였다.¹³⁾ 동시에 주일 청국공사는 1885년 천진조약에 따라 청군의 조선파병 사실을 일본의무대신에게 통고하였고, 이는 일본정부에 즉시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장차 조선내에서 청국과 대결하여 우위권을 차지할 기회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은밀히 준비하고 있던 일본도 동학혁명이 일어나 청군의 조선파병 소식을 접하자 즉시 일본공사와 일본 상비함대 사령관은 군함 3척을 인솔하여 인천에 상륙, 청군보다 두배에 가까운 무력을 파견시켰다.

이에 뜻하지 않은 일본군의 출동으로 위기를 느낀 조선정부와 동학혁명군은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고 동학혁명군은 일단 철수하였다. 이어 조선정부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청·일 양군에게 알리고 철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기는커녕 청에 조선의 내정개혁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청이 이를 거절함으로 동년 7월 청일침략전쟁을 일으키니 결국 일본의 조선파병은 조선지배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침략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에 동학혁명군이 반외세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재차 봉기하여 항일구국투쟁을 전개하였다. 오직 구국일념에서 출발한 동학혁명군은 공주까지 북상했으나 일본군의 무력을 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채 좌절되고 말았다. 이들은 후퇴하면서도 재봉기를 도모하였으나 전봉준이 체포되어 사형당하므로 동학혁명군은 이후 흩어져 또다른 형태의 항일구국세력으로 흡수되어 갔다.¹⁴⁾

비록 이들 혁명군의 표면적 성과는 좌절되었다고 해도 이후 국내외 민중구국투쟁의 기원을 마련해 주어 독립사상이나 민족독립운동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3. 東學革命軍의 民族意識

동학혁명군을 이끈 전주 전봉준은 점차 혁명군 총사령으로 그 위치가 굳어지

13) 『舊韓國外交文書』 2, 日案 2279號 高宗 30年 2月 27日

14) 이현희,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1984. pp.297~332

면서 민족문제에 큰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 그것은 포고문 형식으로 발표된 그들의 혁명 전후의 민족문제 인식속에서 알 수 있다. 동학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성격과 진로문제를 표명하는 창의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 있는데 백성의 존재가치가 국가의 근본임을 천명한 것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포고문을 통하여 「民은 국가의 근본이다. 근본이 허약하면 나라가 쇠잔해 지는 것이다」라고 국민을 국가의 기본 단위로서의 존귀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민의 존재 선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는 보국안민의 방도를 염려치 않고 국록만을 탐하고 있다니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뜻이다. 백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소명하게 국가와 관리에게 경고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¹⁵⁾ 혁명군인 민초는 국가의 유덕으로 생명을 유지하였으니만큼 나라의 흥기를 도와주는 것이 근본도리라고 그 민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있다. 八路億兆가 함께 하고 거듭하는 마당에 창의를 극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동학의 생명인 보국안민으로 생사의 맹서를 삼는다는 것이다. 동학혁명군은 이처럼 의세를 배경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겠다는 강한 자립의 의지·신념을 표출시키면서도 안으로는 모순·비리·부정·부패의 근절책과 정의사회의 실현 및 기강의 확립을 여러번 건의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이 다소 사회적 불안을 가져온 것 같으나 이는 결코 경거망동이 아니고 「民業을 평안히 하고 함께 태평한 세월을 축하하며 모두 聖化의 은택을 입게 되면 천만다행이라」는 것이다. 혁명군은 농민대중과 함께 민의 존재형태로서 사명감에 따라 民業 民産의 안녕을 도모하고자함에 근본 취지가 숨어 있음을 강렬하게 표출하고자 기도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하였던 동학혁명은 처음 수운 최제우의 순도의 참의미를 정확히 가려 내려는 동학도의 염원 즉 교조신원운동으로부터 발원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경로와 절차에 의해 국가에 건의되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¹⁶⁾ 民意上達이 안된 것이다.

이들의 교조신원운동은 서울에서의 복합상소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매우 평화적인 단체행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복합상소가 실패한 후 동학농민은 반봉건운동이라는 민족의 장래 행복을 위한 민족운동의 기원이 될 '민의 존재인

15) 『東學亂記錄』上, pp.142~144

16)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천도교, 1933. pp.46~50

식'운동을 힘주어 절규하기에 이른 것이다.

외세배격과 탐관오리의 숙청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때분이었고 민중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는 교조신원운동이라는 순수종교운동이 반봉건 반외세라는 민족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보은집회에서도 복합상소 때와 같이 斥倭洋倡義의 구호가 중점적으로 절규되었다는 것은 반침략과 함께 민중구원의 원래 동학혁명 정신에서의 출발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그것이 곧 동학사상에서의 근대지향요소가 민족독립사상으로 연결되었다는 논리 인식구조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¹⁸⁾

동학혁명군은 소외되는 민중의 배려를 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의 근본이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하층의 위상을 면치 못하게 된다면 크나큰 위난이 도래하리라는 경고적인 예언을 하였으며 이는 곧 주인의식의 발로라고 하겠다.

이처럼 초창기 고부민투의 형태에서의 동학혁명군의 봉기는 점차 민족의식에 의한 혁명단계로 진입되었다.

4. 東學革命의 개념과 民族의 進路

동학혁명군이 계속 북상하자 정부는 매우 당황하여 동 5월 6일 전라도 병마사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삼아 800명으로 현지에 급파하고 전주성에 진을 쳤다.

그러나 충천하는 동학군의 위세에 눌려 병력은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¹⁹⁾ 이에 정부에 증원군을 요청, 5월 하순 800여명이 합류하여 왔다.

관군은 장성 황룡촌에서 동학혁명군과 접전을 전개했으나 패전하고 말았다. 혁명군은 관군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전주를 점령하였다. 이때 동학혁명군의 기율은 엄정하여 생명의 존엄과 孝悌忠信하는 촌락에는 위협치 않도록 배려하였다.²⁰⁾ 더욱 정의로운 자는 우대하고 교활한 자는 응징하여 보국안민·제폭구민·광제창생의 민족안위에 크나큰 배려를 잊지 않았다.

17) 이현희, 『東學革命과 民衆』 대광서림, 1985. pp.57~97

18) 이현희, 「東學思想과 民族獨立思想」 “韓國思想” 19. 한국사상연구회, 1982. pp.33~54

19)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4月 15~17日

20) 金允植, 『續陰晴史』 上, 1960. pp.310~313

동학혁명군의 복상 기세에 놀린 흥계훈이 이끈 정부군은 1894년 6월 11일 폐정개혁 12개조의 全州和約을 성립시켰다.²¹⁾ 감영에 들어간 전봉준의 보무는 당당하였다. 높은 관에 삼베옷을 입고 거리낌없이 위세 당당하게 승자처럼 걸어 들어갔다. 좌우에 군졸이 정렬하는 가운데 입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각 군에 집강소 설치문제가 협의된 것이다. 전라도 53개 주(읍)의 관청내에 민정개혁 기관으로 집강소가 설치되어²²⁾ 동학교도가 지방의 치안을 맡았는데 이곳에서 치안과 개혁을 담당, 지속적으로 추진한 핵심내용이 따로 폐정개혁 12개조인 것이다.²³⁾

12개조의 폐정개혁은 당시 상황에서는 역적모의에 지나지 않은 가위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운동을 반란이 아니고 혁명운동으로 인식 이해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폐정개혁 내용인 것이다.

즉 불량한 양반 유림 관호배의 숙청을 비롯하여 노비문서의 소각, 칠반천인의 대우개혁, 청춘과부의 개가, 무명잡세의 철폐, 인재위주의 등용 주장, 지벌타과 즉 지역감정의 철폐, 공사채 정리, 토지의 분작, 일본과 내통하는 친일 부역배의 숙청등은 곧 혁명적 내용으로 인식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민중세력의 성장을 지원, 고무함과 함께 반외세성을 강력히 제기한 「東經大全」의 '肅倭精神'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또 집강소는 동학도와 농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속에 동참하였고 청소년이 거의 동학에 입도, 接을 조직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그 위상이 굳어져 있었다.

이같은 동학혁명은 안으로 갑오경장을 일으켰고²⁴⁾ 밖으로는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는바²⁵⁾ 동학혁명군은 다시 대중적인 항일구국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제1차 봉기가 반봉건혁명(反体制)이라면 제2차는 구국투쟁을 위한 혁명전(反侵略)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이는 조선·청·일본 3국의 국제문제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동학혁명군은 중과부적의 무장전투로 충격적인

21) 韓洙勳, 『東學軍의 弊政改革案檢討』 “歷史學報” 23. 1964.

22) 신용하, 『동학군 집강소의 활동』 “신인간” 제450호 p.56

23) 吳知泳, 앞의 책 pp.126~128

24) 柳永益, 『甲午更張研究』 일조각 1990. pp.20~84, p.183,195 결론

25) 田保橋潔, 『日靑戰役外交史의 研究』 pp.290~320, pp.340~350

패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군과 연합한 관군과의 세성산혈투등 수십차례 공방전에서 수만명의 동학혁명군이 희생당하고 말았다.²⁶⁾ 이후 동학혁명군은 비록 패배하여 사산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나 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항일의병투쟁이나 活貧黨 그리고 南學黨·西學黨·英學黨 등에 분산 가담하게 된다.

동학혁명의 인간성 회복과 보국안민정신, 광제창생, 제폭구민에 입각한 구국의 식등은 그뒤에도 계승 유지되었다. 한때 친일적 단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조직을 재정비하여 갑진개화혁신운동(1904)을 일으켜 신생활과 새마을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사회개혁운동도 주도한 바 있다.²⁷⁾ 이 시기 애국계몽운동이 민족운동적 차원에서 줄기차게 일어날 때 동학정신을 계승한 천도교는 종교적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섰다. 이에 교육기관의 지원이나 유능한 인재의 해외유학알선, 『萬歲報』 같은 언론매체를 통한 구국정신으로의 일치단결의 촉진 등은 모두 동학의 민족정신을 재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일련의 구국·국권회복운동이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한국민중의 의지였다.²⁸⁾ 이러한 구국적인 국민운동을 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천도교만의 힘으로는 국권의 피탈을 저지하지 못하고 1910년 8월 29일 백주에 국권피탈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천도교 중진들은 다른 종교인이나 일반 민중이 민족의 고난속에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을때 “지금 이시기야말로 민중구국운동을 동학혁명정신에 따라 일으켜야 한다.”면서 1910년 9월말경부터 민중구국운동을 펼 것에 합의하고 있다.²⁹⁾ 그것은 보성사 중심의 이종일 등이 주도한 것이다. 즉 이들 보성사팀이 동학혁명정신을 계승해서 민중운동에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본다. 이들이 최린·권동진·오세창·권병덕 등과 합류하여 의암성사 손병희를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불교측과 제휴 3·1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자금, 조직, 인사면에서 우위를 점유했던 당시 천교도가 중심이 된 3·1혁명은 동학혁명정신을 25년만에 다

26) 『東學亂記錄』 下, pp.180~190, pp.487~492, pp.525~530

27) 이현희, 「갑진개화혁신운동의 민중사적위치」 “千寬宇先生 還歷記念 韓國史學 論叢”1985. pp.853~870

28) 이현희, 「한국근대국가의 형성을 위한 한국민의 의지」 “誠信史學” 10,1992. pp.7~63

29) 『默菴備忘錄』 1910년 9월 30일

다시 실현시킨 쾌거요 장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후 천도교는 1945년까지 독자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하며 국내외에서 크나큰 민족구국 항일투쟁을 간단없이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³⁰⁾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지상낙원의 신인간상을 형성함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것은 바로 실학정신의 현재적 구현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민중민족자주사상의 뿌리로서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주었던 것이 순수한 동학창도정신에 입각한 민족구원의 동학혁명이었다.

5. 反体制 · 反侵略운동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표적인 脫中世 · 反封建운동이었고, 反侵略 · 反帝國主義등 복합적 성격의 민족운동이었다. 제1차 동학농민봉기는 동학도와 소작농 · 빈농층이 핵심적 주체세력이 된 농민층이 결합한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의 전근대체제를 반대하여 농민혁명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때는 반침략적 농민운동이라기보다는 반봉건적 성격이 더욱 강한 체제 혁명이었다.

이어 제2차 동학농민봉기는 반봉건적 성격보다는 우리나라에 침략적으로 도전해 오는 왜세 즉 일본침략군을 우리 강토에서 물리치기 위한 반침략적 · 반제국주의적 성격의 민족주의 혁명운동이었다. 이때에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은 30여만 명이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루면서도 일본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혁명의 민중운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여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곧 보국안민의 국가관 · 민족관에 기초한 민중의 애국정신을 크게 고양시킨 것이다.

또 동학혁명은 당시 양반중심의 신분제도와 사회적 신분차별을 폐지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수천년동안 내려온 사회신분제의 폐지는 양인 · 천민의 하위신분층의 농민대중들이 동학혁명에 의하여 먼저 아래로부터 혁명사상에 의하여 사회신분의 폐지를 주창해 나가자 그후에 갑오경장의 개화파 집권층이 이를 받아서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사회신분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³¹⁾

30) 이현희, 『천도교의 대한민간정부수립시말』 “郷土서울” 48, 1989.

31) 『高宗實錄』 高宗 31年 6月 28日, 7月 2日條

즉 동학혁명은 개화파 정부의 갑오경장이라는 대개혁을 단행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추동력이 되었다. 당시 개화파 주도층의 세력으로 동학혁명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집권층을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³²⁾ 그들이 집권한 후 단행한 갑오경장의 대개혁은 바로 동학농민들이 폐정개혁을 통해 요구한 내용들을 집권층의 입장으로 일부 수정하여 단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³³⁾ 갑오개혁의 근원은 곧 동학혁명이 온건개화적인 내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지향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학혁명은 동학농민들 스스로가 집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개화파 정부로 하여금 갑오경장의 대개혁을 단행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오경장의 여러가지 개혁내용들은 동학혁명에서 주창된 개혁요구 사항과 분리하여 인식해서는 안되며, 19세기 우리나라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진통의 과정은 동학혁명을 통한 민중요구가 개화파 집권층과의 결합함에 의하여 수행되어 간 것이었다.

동학혁명은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 근대화를 막고 있던 봉건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민족이 선결해야 할 대과제는 한국 민족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세도 민씨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과제를 개화파 지배층이나 중인계층이 수행하지 못하고 농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세력이 동학혁명을 통하여 수행해냄으로써 한국사회가 과도기에 있어 근대사회로 이행해 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는 근대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건인 봉건적 구체제의 붕괴를 동학농민이 혁명적 움직임으로 성공한 것이었으므로 동학혁명은 실패한 농민봉기가 아니라 반봉건체제를 지향한 성공적인 민족개혁과 자주독립운동이었다.

또 동학혁명의 결실로 집강소를 통한 농민정치가 실시되었는데³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여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치적인 민주주의 근대개혁의 지방통치를 실시한 것이었다. 이것은 동학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목표로 한 구체제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체

32) 유명익, 앞의 책, 1990 참조

33) 정진상,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1992.

34) 이현희,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삼영, 1993. PP.170~172

제와 근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동학혁명은 전국적으로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대중들의 정치적·사회적 각성을 크게 촉진시켰다. 동학혁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민족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적·사회적·경제적·신분적·문화적인 문제점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충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말 한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크게 개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대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동학혁명을 통한 내적 개발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항일 의병운동의 토대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즉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다수의 동학농민군이 이후 의병부대로 흡수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완강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 동학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갔다. 이에 많은 문헌들에서 의병세력을 「東學의 잔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 하겠다.³⁵⁾

이와같은 동학혁명은 우리나라의 고래로부터 묵은 넓고 전근대적인 봉건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구체적인 개혁요구 내용들은 근대민족국가의 수립과 민족운동의 기반 및 전통을 마련해준 반체제·반침략운동이었다.

6. 結論

1894년의 동학혁명은 1860년 최제우에 의하여 태동한 동학사상의 인간성 회복과 보국안민의 국가관 및 민족관의 정립속에서 혁명의식이 싹텄다고 보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 이후 민족문제에 대한 해결의식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민족운동을 유발할 충동의욕으로 파급효과를 발산하게 되었다.

또 동학혁명은 다른 어떤 의미나 용어상의 혁명이 아닌 동학도가 중심이 되어 농어민·상인·노동자 등 범소시민을 포함하여 선도적으로 일으킨 국민에 기반을 둔 근대 민중혁명의 기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동학혁명은 종교운동의 차원을 넘어 反侵略·反体制의 정치성을 띤

35) 李炫熙, 『東學革命史論』 大光書林 1994. PP.126~32

주체적이고 자립자주적 의식과 인식하에서 일어난 민중 구국운동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후 1945년까지 50여년간 민중구국투쟁의 전통과 기준, 대표성을 인식케 하였다.

이 혁명은 종교적 성격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봉건체제를 붕괴하고 반대하는 혁명성을 띄었으며, 자유·평등의 구호를 들고 민주적 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 역사에 있어 중세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 당시 밀어 닳치는 외세 및 일본세력에 대한 거대한 민족주의운동의 횃불이었던 것이다.

특히 동학혁명의 정신사적 유산은 3·1혁명에 직·간접적인 영향과 맥락을 조성해 주어 두번째의 민중혁명을 가능케 하였고 성공적으로 민중역량의 실체를 내외에 인식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은 통일과 단합·자주와 주체성의 대명사로 성장함으로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사상적 기간이 되었고, 크나큰 영향을 내면적이고 맥락적으로 강하게 추진력을 제공해 주었다.

갑오농민혁명의 시대구분과 호칭

申 福 龍(건국대 교수: 정치학)

1. 서 론

역사가가 역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여 학계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학설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평가받아야겠지만, 「역사학은 어차피 解釋學일 수밖에 없다」¹⁾는 카야(E. H. Carr)의 말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해석도 또한 그에 못지 않은 중요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명제를 유념하면서 이 글은 세칭 갑오동학혁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시도한 글이다.

첫째로는 1894년의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시대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역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려고 시도할 때 역사가들은 어쩔 수 없이 시대 구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시대 구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곧 그 역사가가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내지 방법을 말하여 준다.²⁾ 따라서 시대 구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갑오혁명의 시대 구분 문제는 이제까지 몇 가지의 시각이 있으나 나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갑오혁명의 전체적인 모습은 물론 1894년에 일어난 일련의 개별적 사건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최초로 들려준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³⁾는 「부름」(calling)이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름을 짓는 것과 그 부름은 이토록 소중한 것이다. 하물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임에라. 갑오혁명의 호칭의 문제는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학계의 의견도 매우 첨예하게

1) E. H. Carr, *What is History?*(London: Macmillan Co. & Ltd, 1961), p. 18.

2) 李基白, 「한국사의 시대 구분 문제」, 한국사시대구분론(서울: 을유문화사, 1973), p. 5.

3) 구약성서 창세기 3: 9.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명칭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을 검토하고 나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2.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갑오혁명의 시대 구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는 1894년에 전개된 일련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제1기: 1893년 11월 사발통문을 작성한 날로부터 1894년 3월 13일에 朴源明의 撫民 정책과 더불어 난민이 해산한 날까지

제2기: 1894년 3월 21일, 李容泰의 侵虐에 항거하여 茂長에서 聚會한 날로부터 5월 5-6일 전주성에서 물러난 날까지

제3기: 1894년 10월 9일, 일본군의 犯闕 소식을 듣고 參禮에서 기포한 날로부터 11월 26-27일에 金溝 院平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실상 농민군이 潰滅한 날까지⁴⁾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894년의 사건은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제1기는 전적으로 민란이었다. 제2기는 민란이라는 주류에 종교 투쟁이 강하게 混在된 복합적 사건이었다. 제1기의 궁극적 관심은 반부패·반봉건을 핵심으로 하는 민권 운동이었고, 제2기는 보는 이에 따라서는 종교 투쟁일 수도 있다. 10월에 전개된 제3기는 다소는 전쟁의 개념을 포함하는 민족주의 투쟁이었다.

이상의 시대 구분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1차 기포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이것이 단순하고도 우발적인 民亂이 아니라 전봉준의 오랜 계획과 야심 끝에 이루어진 혁명의 서막이요 따라서 이 때의 그의 심정은 고부의 弊政 改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도의 그것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이해 관계를 넘어 농민 일반의 요구를 대표하려는 넓은 시야와 포부를 가진 농민군의 지도자

4) 愼鏞廈는 전주성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10월의 삼례 집회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농민 집강소 시기」로 구분하여 1894년의 일련의 사태를 4기로 구분하고 있다. 愼鏞廈,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서울: 일조각, 1993), pp. 160-161f.

로 보려는 견해⁵⁾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1894년 정월의 起包만은 동학과는 무관한 민란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⁶⁾

전봉준의 초기 의도와 관련하여 위의 두 견해를 비교해 볼 때 전봉준이 애당초에서부터 「천하」를 도모할 꿈을 꾸었다는 식의 해석은 자칫 그의 거병을 과대평가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당시 전봉준의 의거는 그가 용의주도하게 계획한 거대한 꿈(grand design)의 시발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과 민중적 추대⁷⁾에 따른 半他意的 거병이었다. 따라서 1월 기병은 다소 황급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전봉준의 의도는 동학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그의 1차의 기포(1894년 정월)는 이에 앞서 30년간 계속된 비조직적인 민란의 연속 과정의 일환으로 보려는 견해⁸⁾가 훨씬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로서는 다음의 두 기록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금번의 난민은 소위 동학도와 다르다. 오로지 양민이 관가의 무거운 수탈을 원망하여 원수 갚기를 꾀함에 있다. 각기 죽창과 몽둥이[木棍]를 지니고 밤을 틈타 일어나고 낮에는 집에 있으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날 정읍에서 棍徒 70여 명을 생포하였는데 동학도는 겨우 5-6명에 불과했다.」⁹⁾

그리고 전봉준의 공초 중에서,

-
- 5) 金義煥, 全瑋準傳記(서울: 정음사, 1974), p. 59; 吳知泳, 東學史(서울: 영창서관, 1940), p. 161 참조.
- 6) 金容燮, 「전봉준공초의 분석: 동학란의 성격 一斑」, 歷史 研究(2)(서울: 한국사학회, 서울), 1958, pp. 6, 10; 拙稿,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서울: 평민사, 1977), p. 62.
- 7) 전봉준공초 초초:
 問 起包時 汝何以主謀乎
 供 衆民皆推矣身 使爲主謀 故依民言
 問 衆民以汝爲主謀之時 至汝家乎
 供 衆民數千名 都聚矣家近處 故自然爲之之事
 問 數千名衆民 何故推汝爲主謀乎
 供 衆民雖曰數千名 皆是愚蠢農民 矣身則文字粗解之緣故
- 8) 金容燮, 앞의 「全瑋準供草의 分析: 東學亂性格의 一斑」, pp. 6, 10, 39.
- 9) 「청국함 平遠號 함장과 能勢辰五郎(인천 2등영사)의 대담」, 주한일본공사관기록(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 98-99.

問 : 난민 중에는 冤民이 많았는가, 아니면 동학 교도가 많았는가?

供 : 원민이 많았고 교도는 적었다.¹⁰⁾

위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고부의 1차 봉기는 조선조 말기에 흔히 있었던 민란의 한 예였지 종교 투쟁은 아니었다. 전봉준의 기포나 동학란 발발의 전제가 된 것은 동학 사상이나 동학 교문의 취회 운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고 민족적 동기의 문제도 이 시기에는 논의의 문제였다. 민족 문제가 대두된 것은 9월의 3차 기포 때의 일이다. 이런 점에서 선학들의 연구는 갑오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동학사상의 비중을 과대 평가하였다.¹¹⁾

농민 혁명에 종교적 인자가 가미되고 郡界를 넘음으로써 전국 규모의 저항으로 확대된 것은 고부 군청의 습격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인 1894년 3월이었다. 長興府使 李容泰가 뒤늦게 난을 평정한다는 구실로 미련스럽게 가담자를 폭압하고 보복이 더욱 가혹해지자 인근 백성들은 10여 읍이 일시에 공명하여 10여일 만에 수만 명에 이르렀다. 동학 교도가 난민과 함께 결합한 것은 이때부터이다.¹²⁾ 이러한 논의는 전봉준전을 동학혁명사와 동일시하려는 종래의 圖式이 무너진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1894년 1월에 일어난 이 사건의 호칭의 문제이다. 학계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1894년 정월의 사건은 「古阜民亂」이며, 무장 기포에서 전주 화약까지가 1차 기포이며,¹³⁾ 공주 전투를 중심으로 한 대일 항전이 2차 기포로 되어 있다.¹⁴⁾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대 구분이며 명칭이다. 우선 1894년 정월의 사건[1차 봉기]은 조선조 후기에 연면히 이어 내려온 민란의 복제 현상이었다. 따라서 성격상 이것이 민란이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차 기포」가 아닌 「고부 민란」으로 호칭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별개의 호칭은 고부 민란과 그 이후에 이어진 일련의

10) 전봉준 공초 초초:

問 古阜起包時 東學多乎 冤民多乎

供 起包時冤民·東學雖合 東學少 而冤民多

11) 金容燮, 앞의 「전봉준공초의 분석: 동학란의 성격一斑」, pp. 6, 10.

12) 梅泉野錄, p. 128: 「民憤怒復亂...於是愚民響應 右沿一帶十餘邑 一時響應 旬日至數萬人 東學之與亂民合 自此時」

13) 愼鏞廈, 앞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p. 130f.

14) 愼鏞廈, 앞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pp. 160-1, 286f.

사건이 가지는 연속성을 부인하는 동시에 듣는 이에 따라서는 고부 민란의 역사적 의미를 減損하려는 의도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토현전투와 그 前史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고부 민란을 1차 기포로 부르고, 황토현전투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3월 거병으로부터 6월의 전주 함락과 和約까지의 기간을 2차 기포라고 불러야 한다. 시대 구분은 모름지기 시간적·공간적 총횡의 연관성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¹⁵⁾ 고부 민란은 그 자체가 민란이고 황토현전투기를 1차 기포라 부르고 공주전투기를 2차 기포라고 부름으로써 고부의 정월 사건을 배제한다면 이는 1894년의 일련의 사태가 안고 있는 연속성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온당치 않은 것이다. 그후 일본의 침략 의욕이 본격화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임박하자 종전의 민란이나 2차 기포 당시의 종교 투쟁의 성격을 넘어서서 농민군이 민족주의 항쟁을 전개했는데 이 시기는 다소는 전쟁의 개념을 포함하는 민족주의 투쟁이었다. 이것이 3차 기포이다.

3. 혁명인가, 전쟁인가?

1894년의 일련의 사건의 시대 구분이 잘못되자 그 파급 현상으로 오늘날에는 명칭에도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명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와 일제 시대에는 동학란, 東學匪徒 등으로 명명되었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도 『동학란기록』(1959)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의 군사 정부 시대에 느닷없이 革命의 칭호를 들었고, 그 후에는 동학 운동이라고도 했다가 이제 진보 사학계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라 하여 엥겔스(F. Engels)적 사관까지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혁명당시와 일제 시대에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논의를 접어 둔다고 하더라도 해방 반세기의 오늘까지도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데에는 물론 냉전과 정치 지배 체제와의 함수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갑오농민혁명이 과연 혁명인가, 전쟁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그것이 혁명으로 명명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5·16군사 정변 직후 이 정변에 정통성과 합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당시 정변의 주역들과 일부 어용 학자들이 5·16군사 정변과 세칭 동학란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함께 붙여 同

15) 이기백, 앞의 「한국사의 시대 구분의 문제」, pp. 20-22.

一視的 위장 효과를 누리고 싶어했다. 이때로부터 「동학은 5·16군사 정변과 함께 혁명」이라는 문교부의 방침이 확정되었고 모든 교재에 그렇게 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학란이 동학혁명이 된 경위는 그렇게 떼뻗하거나 자랑스러울 것이 못된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소위 「서울의 봄」 이후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¹⁶⁾ 이들의 주장은 북한 사학이 1894년의 일련의 사태를 「농민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대일 항쟁의 요소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쟁」의 개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1894년의 사태를 예의 검토해 볼 때, 1차 기포는 군계를 넘지 않는 평범한 민란이었고, 2차 기포 때에는 반역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道界를 넘지 않았다. 또 3차 기포는 그 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가 되어 무력으로써 투쟁한 것이 아니며, 농민과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피지배층이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의 비호 세력인 일본과 충돌한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의 규모와 양상에 있어서도 그것을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혁명군이 일본 군대와 실전에 돌입한 것은 공주에서 1894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일본이 청일전쟁을 유념하면서 농민군의 진압과는 무관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것을 논외로 한다면, 혁명군과 실제로 교전한 일본군의 규모는 미나미 쇼시로(南少四郎)와 모리오 마사가츠(森尾雅一)가 이끄는 대대 병력(617명)에 불과했다. 전쟁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 국가를 교전 단체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병력 간에 일어난 전투 행위」¹⁷⁾이다. 이럴 경우 1894의 일련의 사건은 전투였을 뿐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1894년의 사태에 있어서 일본군과의 교전은, 물론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16) 이후 「농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대표적인 저술로는 동학농민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편),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서울: 여강출판사, 1991);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1-2)(서울: 역사비평사, 1991-1992); 具良根, 갑오농민전쟁원인론(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愼鏞廈, 앞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등이 있다.

17) Quincy Wright, "The Study of War",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New York: Macmillan Co. & Free Press, 1979), vol. 16, pp. 453 ff.

또한 역사상 농민이 전쟁의 주력 부대인 사례는 없다. 농민이 전쟁의 기간 단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 전쟁에 필요한 전투 수단, 즉 무기를 장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개념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그 사회의 어떤 지배 계급의 동원병일 뿐이다. 또한 그들은 知的인 면에서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할 만큼 성숙되지도 않았고 그런 소명 의식도 없다. 그들이 투쟁할 수 있는 한계는 기껏 민란의 규모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894년의 일련의 무력 충돌을 전쟁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으며 갑오혁명을 전쟁으로 보는 것은 엥겔스 이론의 정제되지 않은 적용이다. 따라서 이를 종래 대로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그것이 5·16과 竝列(package)되는 데에서 오는 역겨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5·16군사 정변이 이미 쿠데타로 정의된 지금에 와서까지 불쾌한 사연에 집착하여 혁명이라는 용어를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혁명일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호칭이 걸맞다는 분석은 논리의 비약이며 성격 규명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약의 폭을 훨씬 넘어선다. 이제 우리는 차라리 그 혁명이 어떤 성격의 혁명이었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¹⁸⁾

그런데 갑오농민혁명의 명칭이 전쟁이나 혁명이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농민 항쟁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민란의 요소와 종교적 요소의 함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1894년의 사태는 조선왕조 후기를 이어 내려온 민란의 요소가 主脈이며 동학은 그 민란에 착색된 하나의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동학의 교리 면에서 볼 때, 開闢 이론과 같은 개혁적인 요소로 인하여 외세에 항전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도가 혁명에 참여한 것은 교리적 해석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고 조병갑과 이용태의 폭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또 그들이 혁명에 참여했을 때에도 갑오혁명에 있어서의 동학은 지류였으며 민란이 주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종래의 학설들은 갑오혁명에 있어서의 동학의 종교적 요소를 확대했다.

중세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뮌처(T. Müntzer: 1489-1525)의 난이 종교를 매개로 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농민 전쟁이었듯이 농민은 반봉건적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종교적 표피를 쓰고」(in religious guise)¹⁹⁾ 또는 「종교적

18) 朴鍾晟, 「갑오농민봉기의 혁명성 연구」,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서울: 집문당, 1994), pp. 340-341.

기치 아래」(under religious flag)²⁰⁾ 투쟁을 전개할 뿐이지 그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종교 전쟁은 아니다. 갑오혁명에 있어서는 민란이 外延이요 동학은 內包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柳永益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1894년의 농민 봉기를 진보적 성격의 사회 혁명으로 규정하는 남북한의 통설은 한국 근대사를 이른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비교적 단순화하거나 혹은 마르크스(K. Marx)류 유물사관의 역사발전론을 한국 역사에 도식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한 데서 비롯된 誤說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전봉준이 일으킨 1894년 3월의 봉기는 본질적으로 유교의 충군애민사상에 바탕하되 체제 내의 정권 교체를 겨냥하여 일으킨 무장 개혁 운동(armed reform movement)이었다.」²¹⁾

유영익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봉준이 大院君과 유교에 기초를 둔 보수주의적 개혁을 密謀했다는 사실에 그 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갑오혁명에 있어서의 종교적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지적이다.

4. 결 론

이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로, 1894년의 일련의 사건을 1·2·3기로 시대 구분함에 있어서 고부 민란을 제외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런 식의 시대 구분은 사건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고부 민란의 역사적 의미를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부 민란이 제1차 기포이며, 황토현전투를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투쟁이 제2차 기포이며, 공주 전투가 제3차 기포라고 시대 구분하는 것이 온당하다.

19) Guenter Lewy, *Religion and Revolu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 119.

20) *Ibid.*, p. 583.

21) 柳永益, 「갑오농민봉기의 보수적 성격」,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 p. 354.

둘째로, 1894년의 일련의 사건의 명칭은 「농민 혁명」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 시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굳이 干支를 붙인다면 「갑오 농민 혁명」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명명이 될 것이다. 동학 혁명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요소를 과장한 것이다. 바라다트(L. P. Baradat)의 주장처럼, 혁명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전개되는 정치적 개혁이라는 정의²²⁾에 오류가 없다면 창도(1860)로부터 갑오혁명(1894)까지의 35년 동안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도 1894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학 종단 측에서 동학혁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양보는 동학 종단에 대한 인연과 연민 때문이지 엄격하게 말하자면 갑오농민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22) 申福龍(外譯), 현대정치사상(서울: 평민사, 1995), pp. 48-49;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its Origins and Impact*(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4), p. 17.

甲午東學革命의 發祥地 考察

-白山起包와 茂長起包說의 檢討

崔玄植(井邑文化院長)

序言

갑오동학혁명은 대개 크게 나누어 제1단계 고부농민봉기, 제2단계 백산기포(3월봉기), 제3단계(혹은 집강소 민정) 9월 봉기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집강소 민정을 한 단계로 설정해서 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제1단계 고부농민봉기는 全琫準이 고부군수 趙秉甲의 학정에 항거하여 일어난 고부군민의 거사였으니 성격상 민란이라 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목적이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다. 보통 민란의 경우는 목적이 그 고을의 守宰(郡守·縣監)의 정치에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 고부의 경우는 군수를 정치하고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京師(서울)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그 주도 인물들이 白山起包의 주역이란 점에서 고부농민봉기는 보통 민란의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부농민봉기를 갑오동학혁명의 기점으로 또는 그 봉기지를 발상지로 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 3월봉기의 白山起包는 東學敎의 조직이 동원된 거도적인 봉기로 또한 목적하는 바가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표방 하므로써 고부농민봉기와는 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에다 농민군들이 전도(羅州가 제외된)를 장악하고 집강소 민정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미완성이지만 혁명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다.

9월봉기의 參禮起包는 외세와의 전쟁이다. 일본군이 궁성에 침입하여 고종왕을 연금하고 있는 초비상상태에서 전봉준이 호남의 농민군을 소집하여 삼례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고부농민봉기와 3월봉기가 인권과 민권을 위한 우리의 민주항쟁이었다면 9월봉기의 삼례기포는 민족의 자주를 위한 거족적인 민중항쟁인 것이다. 오늘 본론에서는 갑오동학혁명의 발상지 고찰을 위하여 고부농민봉기로부터 풀어 보기로 한다.

1.古阜農民蜂起

고부군수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한 고부군민들은 마침내 봉기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군민대표 20명¹⁾은 1893년 11월 宋斗浩(古阜郡 西部面 竹山里) 집에 모여 숙의한 끝에 봉기를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발통문(沙鉢通文)을 각리의 집장들에게 돌렸다.

- 1.古阜城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 1.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1.군수에게 양유하여 인민을 浸漁한 탐리를 격징할 것
- 1.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로 직향할 것

사발통문이 한창 돌고 있을 무렵인 11월 30일 군수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전임 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2월 한달 동안에 다섯 사람이 계속해서 군수로 임명 되었지만 한 사람도 부임하지 않은채 이듬해 정월 조병갑이 다시 유임 되었다.

드디어 고부군 농민들은 1894년 정월 10일밤²⁾ 古阜郡 畚內面 禮洞³⁾(現井邑市 梨坪面)에서 일어났다. 군수 조병갑이 다시 유임되자 군민들은 분개하여 일어난 것이다.

全琫準⁴⁾은 정월 10일밤 “배들평”을 중심으로한 10여개 부락의 농악대를 동원하여 그의 중심지가 되는 예동에 성대한 乞軍을 소집했다. 이때 수천을 헤

1) 全琫準, 宋斗浩, 鄭鍾赫, 宋大和, 金道三, 宋柱玉, 宋柱晟, 黃洪模, 崔興烈, 李鳳根, 黃贊五, 金應七, 黃彩五, 李文炯, 宋國燮, 李成夏, 孫如玉, 崔景善, 林魯鴻, 宋寅浩

2) 全羅道 古阜民擾日記 巴溪生(日本人)

3) 全琫準實記 張奉善著

4) 全琫準, (1855~1895) 자 명숙 관 천안 고창읍 당촌 출생 어려서 완주 봉동으로 이사했다가 정읍시 감곡면 계봉리(황새마을 당시 태인현)로 옮겨 살았다. 이 곳에서 18세 되던 해에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지금실 당시 태인현)로 이사하여 10여년 지나서 정읍시 이평면 양교리로 옮겨 살다가 다음해 다시 조소리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고부농민봉기를 영도했다.

아리는 많은 군중이 모여 들었다. 전봉준은 원에 사무친 군중들을 골라서 두 대로 나누어 이끌고 고부읍으로 들어가 동헌을 점령했다. 군수 조병갑은 군중이 몰려 온다는 급보를 전해 듣고 이미 몸을 피하고 없었다. 농민들은 두어달 동안이나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白山城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농민군의 본거지를 백산성으로 옮겼다. 또 전봉준은 威悅漕倉(국세를 거두어 들이는 곳)으로 진격하여 轉運使 趙弼永을 징치하자 했으나 군중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요가 월경하면 반란이 되기 때문이었다.⁵⁾

농민군들의 본거지를 백산성으로 옮겼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봉준은 이미 백산성⁶⁾을 군락지로 꼽았던 것이다. 고부농민봉기는 두어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사발통문에 명시한 대로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고 全州城을 함락한 뒤 서울로 향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농민들의 불응으로 좌절되고(군수는 축출 되었지만) 새로 부임한 군수 朴源明의 회유에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2. 白山起包

고부농민봉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전봉준은 고부군민만으로는 큰일을 이룰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동학의 조직을 동원키로 하고 손화중포와 접촉했다.

5) 「전봉준실기」

6) 白山城址 지방기념물 제31호(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전북도문화재대관」 1979년간 전라북도

현재의 백산성지는 삼국시대의 성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확실한 고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백산성은 과연 1894년 고부농민군들이 축조한 것일까? 기존의 성지에 수축을 한 것일까?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가 있다.

「全瑋準實記」의 기록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축성작업을 마치고 농민군 본거지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니 그 규모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백산성지는 고부농민군의 신축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기존의 성지에 수축을 가했다면 한 달포 동안 어떤 수축작업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백산성지는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孫華仲⁷⁾은 전봉준의 요청에 시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관군의 탄압(안핵사의 동학도에 대한 폭거)이 심한데다 그의 혁명론에 공명하여 마침내 3월봉기에 이르게 되었다. 손화중은 3월봉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⁸⁾

전봉준과 손화중은 전라도 각 고을 접주들에게 통문을 보내 제폭구민 보국 안민으로 동학의 대도창명을 위하여 도인들이 일어날 것을 주창하고 이 해 3월 21일을 기하여 동학교도와 많은 농민을 고부 백산에 모이게 하니 바로 백산기포다.⁹⁾ 백산에 집결한 농민군들은 전봉준을 총지휘의 대장에 추대하고 손화중, 김개남은 총령관(摠領管)이 되고 오시영, 최경선은 영술장이 되고 송희옥, 정백현을 비서로 정하고 비로소 동학농민군의 대오를 갖추었다.¹⁰⁾

7) 孫華仲, (1891~1895) 이름 正植, 字 華仲(化中) 호 楚山 井邑市 科橋洞 출생으로 이웃 蔭城里로 옮겨 살았다. 지리산 靑鶴洞에서 東學에 入敎하고 돌아와 포교로 전전하다가 무장 양실(現 全北 高敞郡 茂長面 德林里)에 接所를 정하고 孫華仲包의 大接主가 되었다. 甲午東學革命에 東學의 조직을 움직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8) “全琫準實記”(…部下를 失한 琫準이 躬訪하여 救援을 請함에 華仲은 時機尙早를 力說하였으나 全氏의 懇願에 應치 않을수 없었다.)

全琫準供招錄(1次)

問:당초 고부기포시의 동모자는 모두 누구였던가?(當初 古阜起包時 則共謀者 皆誰也)

供:손화중, 최경선, 모모인 이었다(孫華仲, 崔景善, 某某人)

9) 東徒問辯(東學亂記錄上)…… 時全州人 全琫準, 古阜人金開南等 一嘯屯集頃刻爲萬餘人 三月二十一 豎一面白旗大書東徒大將四字 掠奪郡邑兵器 遂成「賊壘」……

10) 東學史(東學思想資料集二)「東學亂과 古阜陷落…… 大軍을 몰아 古阜白山에 陣을 옮겨치고 다시 軍을 조성할세 衆望에 의하여 全琫準이 大將이 되고 孫華仲, 金開南이 總령관이 되고 金德明, 吳時泳이 총참모가 되고 崔景善이 영술장이 되고 宋熹玉, 鄭伯賢이 秘書가 되었고 大將旗幅에는 輔國安民 四字를 大書로 特書하였고……」

3. 茂長起包說

백산봉기¹¹⁾에서 주력을 이룬 것은 무장의 손화중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라도 고부 민요일기”¹²⁾에 3월 20일 무장의 동학군 수 만명이 屈峙(全北 高敞郡 雅山面)를 넘어 고창을 거쳐 3월 29일 茁浦(現 全北 扶安郡 茁浦面)를 통과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서 이다. 최근에 발견된 “隨錄”¹³⁾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손화중포의 동학농민군은 당시 茂長縣 冬音峙面 堂山里(現 全北 高敞郡 孔音面 九岩里 속칭 九水내)에서 집결하여 굴치를 넘어 고부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을 가지고 갑오동학혁명의 발상지가 고부가 아닌 무장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전봉준의 판결문 “茂長에서 일어나서”를 근거로 또 하나는 위의 “隨錄”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愼鏞廈교수(서울大)는 1985년 5월 “한국학보”에 발표한 논문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 農民戰爭」 서두에서 「종래의 모든 연구는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도 고부민란과 마찬가지로 「古阜」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의 자료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甲午農民戰爭의 제1차 농민전쟁은 「茂長」에서 일어나서 고부를 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래의 모든 연구는 「茂長都所」를 간과했기 때문에 고부민란이 일단 해산 되었다가 차원이 다른 三南 일대의 대규모 農民戰爭으로 비약하여 폭발한 구체적 전후 因果 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왔다¹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는 茂長起包論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1) 「起包」란 包가 일어난다는 종교의 용어이므로 봉기로 표현키로 한다. “포”는 대개 몇 십개의 “接”(接主)으로 형성되는데 이를 총지휘하는 접주를 대접주라 했다.

12) 「全羅道 古阜民擾日記」 「秘書類纂」 1894年 正月 日本人 巴溪生의 고부농민봉기에 관한 기록임

13) “隨錄” 日本 京都大學 가와이(河合)文庫 소장의 문적이다 관의 기록으로 보이는 필자 불명의 필사본으로 1894년 3월 무장의 동학농민군 동향에 관한 기록이다.

14) 韓國學報 40 pp110~111

茂長都所의 설치

(一) 「그러면 왜 제1차 농민전쟁이 으레 「고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무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이유는 전봉준이 「무장」에 동학남접의 「도소」를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종래 이것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고부민란 이후 그것이 제1차 농민전쟁으로 차원이 다른 비약적 발전을 이룬 원인과 배경을 밝히지 못하였다. 「高宗實錄」은 全瑋準의 「茂長都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즉 東學都所의 通文 발송에 의한 것이라 칭하면서 聚會한 자가 근 천명에 이르렀으며 이미 저들의 소원이 있어서 해당읍에서 고치도록 할 터이므로 즉각 물러 가라는 뜻의 소상한 설유를 했습니다¹⁵⁾(高宗實錄 高宗 31年 甲午 3月 23日 條..... 稱以 東學都所 聚會者至近千名 而既有渠等所願 自該邑矯擄 故以昭詳曉諭.....)」

(二) 「..... 전봉준은 이러한 조건 위에서(안핵사의 가혹한 탄압 아래서) 古阜를 떠나 비밀리에 茂長으로 피신하여 큰 뜻을 품고 茂長에 東學의 都所를 설치한 것이다. 전봉준이 古阜按覈使 李容泰의 추격을 피하여 전라도의 여러 군·읍 중에서 하필 무장에 가서 都所를 설치한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茂長의 대접주는 孫化中이었는데 孫化中包가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큰 包였다. 또한 손화중은 1년 전의 보은집회때 독자적으로 湖南의 동학도를 모았던 金溝聚黨의 두목이었다. 따라서 茂長에 都所를 설치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대규모의 東學組織勢力을 都所의 지휘하에 둘 수 있었다.

둘째 고부접주 전봉준과 무장 대접주 손화중과의 절친한 친분과 동지적 결합관계 때문이었다. 전봉준과 손화중은 단순한 동료접주가 아니라 徐璋玉 계열의 血盟의 동지였다. 전봉준은 東學에 入道한 연륜이 낮아 대접주가 아니었고 孫化中은 東學내의 서열이 전봉준보다 위인 大接主였으나 손화중은 자기보다 연령이 6세나 위이며 學識과 智略에서 탁월한 전봉준을 기꺼이 大接主인 자기의 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전봉준이 가장 신임하는 同志였다.

셋째 茂長이 지리적으로 고부와 전주에 다같이 가까운 東學組織의 거점이

15) 前掲書 pp118~119

였기 때문이었다.¹⁶⁾

(三) …… 전봉준이 茂長에 南接都所를 설치하고 약 20일 동안에 완전히 조직화한 郡은 그 후의 자료에서 찾아 보면 茂長, 高敞, 古阜, 泰仁, 井邑, 扶安, 興德, 金溝, 金堤 등 약 10여개 郡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東學은 완전히 郡別로만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접주별로 조직되어 한 郡의 접주가 다른 郡의 자기가 입도시킨 교도를 관장할 수 있었으므로 물론 이러한 지역별 분포는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이것을 접주의 包별로 보면 전봉준은 대접주인 孫化中包, 金開南包, 金德明包와 자기의 包등 4개 포를 완전히 사전 조직화한 것으로 보인다.¹⁷⁾

茂長起包

(四) …… 이 창의문과 통문에 따라 사전에 조직한 농민들이 茂長都所에 모여 들어 군사대오를 편성해서 봉기하였다. 이것이 茂長起包이다. 茂長南接都所의 茂長起包는 北接大都所와 사전협의 없이 獨自的으로 봉기한 것이었다.¹⁸⁾

(五) 白山에서의 농민군의 확대개편과 농민군 대진군

「농민군은 白山에 이동하여 3월 25일경에 다음과 같이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 하였다

大將 全瑋準
摠領管 孫化中, 金開南
摠參謀 金德明, 吳時泳
領率將 崔景善
秘書 宋熹玉, 鄭伯賢

위의 白山에서 확대 개편된 농민군 지도부의 구성은 茂長에서 봉기할 때의 지도부인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지도부 서열과 최고 지휘권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高부점령 후에 도착한 접주급 지도자들을 지도부에 흡수하여 총참모, 영솔장, 비서 등의 조직을 확대하고 직위를 배분하여 농민군 지도부를 확대 강화한 것이었다.¹⁹⁾

16) 前掲書 p122

17) 前掲書 p124

18) 前掲書 p125

19) 前掲書 p131~132

「隨錄」

다음은 茂長起包論의 자료로 인용되고 있는 “隨錄”에 대해서 언급코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隨錄은 최근 日本 京都大學 河合(가와이)文庫에서 발견된 자료이다.

“고부민요일기”에 3월 20일 茂長의 동학군 수 만명이 屈峙(高敞郡)를 넘어 고창을 거쳐 부안으로 향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때 그들의 집결지가 어디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 기록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 가운데 무장기포론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당시 무장현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금월(3月) 22일에 접수된 무장현감 趙命鎬의 보고에 따르면 이 달 16일 茂長縣 冬音峙面 堂山里에 수상한 무리들 수 천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그 종적이 이상하여 여러 가지 풍설이 돌고 있으므로 영리한 이속·장교를 비밀리에 보내 수탐한즉 이들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고 거개가 다른 고을 사람인데 이 마을 민가에 모였으며, 말하기를 이들은 동학도라 하온 바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의 사이에 혹은 낮에 혹은 밤을 타고 사방에서 모여 들어 거의 1,000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당산마을 앞의 들판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靈光과 法聖고을의 접경지대이다. 이들 가운데 수백명은 法聖 陳良面 龍峴里(현재의 靈光郡 法聖面 用德里 龍峴마을)의 대밭에 가서 대를 베어 죽창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각 마을의 민가에 있는 조총과 팽이·낮·가래 따위의 기물을 찾아 빼앗아 갔으며 그들의 소위 동학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과거에 감정이 좋지않던 사람을 일일이 잡아다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웃 마을 石橋村에 사는 安德必의 집을 습격하여 다른 사람이 맡겨놓은 백미 60여 석을 뺏고 그 집을 부셨으며, 같은 마을 宋京洙의 집 살림을 역시 때려부셨다. 이때문에 인접한 各面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해괴하나 양민과 어울려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속과 고을의 덕망가를 보내 이치를 따져가며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공문을 보내 해산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그 무리들 당장의 기세는 장차 수천명에 이르면 관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일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고 또 그 도당이 보내온 서면에도 역시 불일간 이 고을을 떠나겠다 하오나, 매우 수상한 무리들인지라 그 참뜻을 칙령할 길이 없는 고로 다시 이속으로 하여금 은밀히 염탐한즉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이나 어느곳을 향할지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아낸 바가 이와 같으므로 우선 확인된 정보를 위와 같이 보고한다고 하였다.」

(今月二十二日到付 茂長縣監趙命鎬牒呈內 今十六日 本縣冬音峙面堂山地何許

亂類輩幾千名聚黨逼邇 蹤跡殊常是如 傳說浪籍 故出送伶俐吏校 密密搜探 則此非本邑之民 舉皆他邑之民 而聚接于該村民人家 稱以東學徒是乎所 始也不滿百餘名 自十六日以十八日至數日之間 或夜或晝 從四方來聚者將爲千餘名 皆聚於該村前野 所住之處 相接靈法兩邑之界是乎所 彼輩幾百名 往于法聖陳良面龍峴里竹田所在處 刈竹爲鎗是遣 或派送各處村民家 如干所存鳥銃與鑊器鎌鍤等物 一一搜奪 以去是遣 渠所謂毀其學反其學之人及曾前有嫌者 一並捉去 毆之打之是遣其隣石橋村安德必家 有何許人質置米是加噓 白米六十餘石亦爲奪去 仍毀其家 該村宋京洙家產又爲打破是乎所 以是而隣面搔擾平民渙散也 另究彼輩之所爲 誠一變怪 其在近民 不得不禁止 故一邊遣吏鄉 據理曉諭 一邊送令飭 期圖散解 而彼輩之當場氣勢 將近數千 以若邑力莫可退斥 而彼徒謂以日間移居他境云云矣 卽接彼徒呈票 則亦當不日出境云是乎乃 內忽之跡殊常之類 莫可盡測 故使之吏更加密探 則或分隊或散處 將有次次東裝之幾 而所向之處 蹤難的探 所問之說既如是 故爲先據實牒報亦爲白乎跡)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향토사학자 陳鎭洪씨(前 郵政會長, 現 茂長邑城保存事業會長·서울)는 1992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찾아서」라는 현지 강연에서 「이로써(위의 기록을 말함)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茂長임이 확인되고 거사일도 무장을 출발하여 장도에 오른 3월 22일 즉 양력으로 환산한 4월 27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고 주장했다.

위의 무장현감의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당시 동학도들이 堂山里에 모인 상황과 그 동정,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현감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동정 역시 民家에서 창과 농기구류(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인 듯. 필자주)와 錢穀을 거두어 갔다는 외에 어떤 다른 사실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茂長起包說의 檢討

①신용하교수의 기포론

(一) 「高宗實錄」의 기록은 「隨錄」(다음 項 참조)의 기록과 한 내용이다. 通文을 발송한 都所는 全琫準의 도소가 아니라 孫華仲包의 도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봉준이 새로 설치한 도소가 아니라 기존의 순화중포의 도소인 것이다. 당시 전봉준은 무명의 접주로 茂長에 가서 도소를 설치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접주이면서도 교도를 거느리는 접주가

아니었다. 전봉준은 그 供招(1次)에서 「네가 고부에 살고 있을 때 동학을 行敎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에 「나는 어린 소년들을 가르치고 동학을 행교한 일은 없나이다」²⁰⁾ 하고 대답했는데 행교한 일이 없다는 말은 접주로서 포교나 교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전봉준은 여느 접주들처럼 많은 교도를 거느릴수 있는 접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전봉준은 무장에 가서 都所를 설치 하였다기 보다는 손화중과 제휴하여 손화중포를 영솔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봉준이 지휘권을 완전 장악한 것은 백산봉기후로 보여진다.

- (二) 全琫準이 茂長으로 간 것은 안핵사의 탄압에 쫓겨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손화중과의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였다. 고부농민봉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전봉준은 東學의 세력을 끌어 들이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손화중과의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였다. 전봉준과 손화중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²¹⁾

「당시 다섯 살이었다는 孫翁(孫華仲의 둘째 아들)이 어머니 柳氏(1855~1912)로부터 들어왔다는 증언에 의하면 당시 茂長縣 양실(兩谷 現 高敞郡 茂長面 德林里) 마을 조그마한 오두막집으로 이사해서 한 1년쯤 되었을때부터 전봉준이 가끔 찾아 왔었다. 출입하는 道人들 가운데 전봉준은 유독 키가 작고 셋별같은 눈을 지닌 사람이었다. 교인들이 앉으면 으레히 道談과 시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손화중은 아직 우리가(東學敎人) 일어날 때가 아니더라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눈발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해질무렵 전봉준이 찾아와 뒤 골방에서 그날밤 닭이 울도록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갑오동학혁명사)

전봉준은 손화중으로 하여 東學에 입도 했던 것 같다. 東學史의 기록에 의하면

不遇之志를 품고 四方으로 두루 돌아 다니다가 戊子年間(1888년 필자주)에 孫華仲선생을 만나 道에 參與하여 세상 일을 한 번 하여 보고져 하여²²⁾ 그런데 全琫準은 日本人(?)과의 대담에서 金致道²³⁾로 말미암아 동학에 입교했다고 하였다.

20) 問:汝가 古阜에 住接時 東學을 行敎치 아니 하였나나

供:矣身이 如干童蒙을 訓導하고 東學은 行敎한 일이 없나이다.

21) 崔玄植著 「甲午東學革命史」(1995) p53

22) 「東學史」(東學思想資料集2) p161

(三) 20일 동안에 조직을 완성 했다는 대목이다. 고부봉기농민들의 해산한 날이 3월 13일(고부민요일기)이라면 무장집회일인 21일까지는 10일 미만이다. 전봉준과 손화중과의 봉기 교섭은 지난해 사발통문 시기에서부터라고 추정된다. 그것은 손화중은 시기상조라고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고부군민이 아닌 최경선(태인), 손여옥(정읍 손화중의 족질)만 사발통문 20명 대표로 참가한 점으로 미루어서이다.

3월봉기(白山起包)에 가담한 지역은 10여개 군 뿐 아니라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고부민요일기”에 의하면 「務安에서는 18日(4月) 동학농민군 7,8천명이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三内面에서 邑内로 들어와 밤을 지내고 다음날 羅州로 향했다」고 하였으니 이 많은 농민군은 咸平, 長城을 비롯한 전라도 동남부 지방의 농민군들인 것이다. 4개 包를 완전히 사전에 조직했다는 가정은 全琫準의 包를 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전봉준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그렇게 많은 교도를 거느리는 접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四) 「…… 농민들이 茂長都所에 모여 들어 군사대오를 편성해서 봉기 하였다」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인 것이다. 무장에서 군사대오를 편성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기록이므로 충분한 입증자료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민군의 군사대오는 白山(東學史)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설화되어 있는 것이다.

(五) 白山起包를 무장집회의 확대개편으로 보는 견해이다. 무장집회는 백산집회를 위한 부분적인 집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장집회는 주로 손화중포의 집회인데 반해 백산 집회는 손화중포를 비롯하여 금구, 태인, 고부, 부안 등지의 동학농민군이 집결한 것이다. 그리고 摠參謀 金德明, 吳時泳, 領率將 崔景善, 秘書 宋熹玉, 鄭伯賢 등을 고부 점령후에 도착한 非主流의 접주급 지도자라 하는데도 수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들은 손화중포(吳時泳, 鄭白賢)의 인물이 아니면 전봉준(宋熹玉, 崔景善)의 측근 인물들이다. 특히 宋熹玉은 전봉준의 妻族七寸²⁴⁾이요, 崔景善은 그

23) 金致道(1850~) 井邑市 淨雨面 水金里 佐斗 출생, 짚신 장사로 생업을 삼았음. 1899년 己亥井邑農民蜂起에 참가하고 1909년 항일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3년 옥고를 겪었다. (甲午東學革命史)

24) 全琫準3次供招

의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전봉준의 謀主(摠參謀) 혹은 고굉(股肱·다리와 팔)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이 들(全瑋準, 孫華仲, 金開南)과 차별화 하는 견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리고 대오편성이 두 군데서 이루어 졌다는 주장도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에 상당한 입증자료가 제시 되어야할 것이다.

②隨錄

「수록」의 기록은 茂長현감이 동학도들의 堂山里 집결 상황을 전라감영에 보고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수 없다. 따라서 무장기포론의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結 論

이상에서 무장기포론의 두 논문의 논지를 검토한대로 여기에 몇가지 의문점들이 제기 되었다. 앞으로 학계의 연구과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론을 맺어 보기로 한다.

1. 全瑋準의 供招내용(判決文)은 그 개인에 대한 조사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로 규정하는 데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東徒大將으로 추대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 全瑋準의 공초 275개 문항 가운데 古阜起包란 표현은 있으나 무장기포란 표현은 없다.

1차공초

問 : 작년 3월의 古阜에서 起包하여 全州로 向하는 사이 幾邑을 經하얏스며 幾次 接戰 하얏느냐?

供 : 所經邑은 茂長에서 古阜로 由하여 泰仁, 金溝를 經하여 全州를 達하랴하다가 營兵 萬餘名이 下來한단 말을 듣고 扶安으로 가서 古阜로 還至營軍과 接戰하이다.....

이상의 공초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보면 첫번째 물음에서 “茂長에서 일어나서”라고 대답했는데도 조사자는 계속해서 古阜起包라고 묻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고부기포가 세론화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무장집회가 백산집회의 전단계 모임이라고도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장집회는 백산집회(천체가 모이기로 한)로 가기 위해서 무장지방(인근을 포함)의 모임이란 뜻이다.

3. 白山에서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이 모여 비로소 동학농민군으로서의 대오를 결성 했으니 이곳을 발상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상지란 단순한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오를 결성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백산집회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4. 농민군의 진압에 나선 관군이 무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고부(부안)로 출동했다는 점이다. 만일 기포지가 무장이었다면 관군이 무장으로 출동했을 것이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집결지(기포지)가 ○○일 「백산」이란 것이 세론화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백산기포란 것이 비밀리에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할수 있다.

5. 전봉준은 왜 무장으로 갔는가 이다. 전봉준은 많은 교도를 거느리는 접주가 아니었다 함은 앞서 말한바와 같다. 그리고 전봉준이 무장으로 간 것은 손화중포의 동학농민군을 영솔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유도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에 한가지 첨가해서 말할 것은 「20일 동안에 조직을 완성했다」(기포론)의 검토이다.

전봉준과 손화중과의 봉기 교섭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지난해 사발통문 시기에서부터라고 추정된다. 그것은 손화중은 시기가 아직 빠르다고(시기상조) 이에 응하지 않았고 최경선(泰仁), 손여옥(井邑)만 사발통문 20명 대표로 참가케한 점으로 미루어서이다.

6. 「隨錄」의 자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한 무장현감의 상황보고 기록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그 내용에 무장기포설의 근거가 될만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내용 가운데 「그들이 어데로인가 간다고 합니다」는 행선지가 고부를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著書:甲午東學革命史
- ◆ 論文:錦城正義錄의 文獻的 考察
-羅州 싸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이상식(전남대 교수)

1. 序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우연히 돌발되었거나 그 자체로 끝나 버린 역사적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랜 동안에 걸친 민중역량의 축적속에서 일어났던 것이며 우리나라 근대사의 서막이요 민족, 민주운동의 원동력으로 계승, 발전되었던 것이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 및 실학의 발달은 왜란과 호란으로 무너져 버린 조선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변태적인 양반관료정치인 세도정치의 성행으로 관기는 해이해지고 三政이 문란하여 백성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농민항쟁이 빈발하였으며 壬戌년의 민중항쟁은 그 절정이었다.

1862년의 농민항쟁은 진주를 필두로 하여 전국의 70여 고을에서 일어났는데 그중 전라도에서 그 절반이 넘는 38개 지방에서 농민들이 궤기하여 그들의 질곡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¹⁾ 이것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출범한 조선사회의 체제에서 기인한 수탈과 탄압의 계속 때문에도 있지만 농민의 의식성장과 함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호남지방의 임술민중항쟁은 익산, 함평, 부안, 금구, 장흥을 비롯하여 38개 지방의 농민들이 대체로 수령과 아전 그리고 토호들의 착취와 부패로 田政, 軍政, 還穀이 문란하였는데 환곡의 경우는 매년 채무가 누적되어 일년 총수확량을 능가할 정도로 부담이 가중되었다. 고을마다 수천명의 농민들이 읍내로

1)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들어가 수령을 경계 밖으로 축출하거나 宣撫使에게 폐단을 시정할 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함평의 경우는 주동자 정한순을 장군이라 칭했으며 수령을 축출하고 한달 가까이 통치권을 행사했으며 그들의 봉기 목적이 輔國爲民에 있다고 주장하여 동학농민혁명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²⁾ 그러나 1862년의 농민봉기는 지역분산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한계성을 가졌으며 탐관오리의 징계나 주모자의 처벌로 진정되었다.

그런데 평등사상과 斥倭洋사상 그리고 새세상을 연다는 개혁사상을 내포한 동학이 전파되면서 농민들은 앞을 다투어 동학을 따르게 되어 자신들을 의식화 시키고 조직화하여 역사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게 하였다.

동학농민들은 삼례집회와 서울의 伏閣上疏 및 斥倭洋패서 활동, 그리고 보은집회나 금구 원평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과시하면서 축적해 갔고 그때마다 호남의 동학농민들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1894년 1월 고부의 농민봉기를 계기로 3월에 白山에 모여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호남의 33개 고을에서 동학농민이 쫓기했다.

동학농민혁명이 근 1년 동안 300만명이 동원되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봉건의 민주화와 반외세의 구국항쟁이었다는 시대 배경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때문이다. 특히 호남지방의 전역에 집강소란 농민통치기구가 구성되어 폐정개혁을 실시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실현했고 고리채를 정리했으며 농민의 소원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³⁾

동학농민혁명은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그 지휘를 받는 관군에 의해서 좌절되었지만 수천년 동안 지탱해 오던 봉건체제는 무너졌고 반외세사상은 계속되는 일본침략에 맞서는 항일 정신으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반봉건으로 특징지우는 근대사의 시발이요 계속되는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으로 나라를 지탱했음은 물론 역사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2) 오영교, 1862년 농민항쟁연구-전라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손보기 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3) 신용하, 집강소의 성립과 개혁의 성격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1994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체제하에서 탄압받고 수탈당하던 농민대중이 그들의 역량을 축적하여 근대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며 혁명 그 자체가 좌절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 농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정을 통해서 많은 축적을 이룬 역량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가 발전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였던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 우리역사에 공헌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1898-1900년에 있었던 동학농민 재기운동과 한말의병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역할 그리고 그 후의 민족, 민주운동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 버린 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발전을 주도한 빛나는 혁명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1898-1900년의 동학농민 재기운동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지향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과 관군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자 동학농민군은 추격하여 남하하는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양반층의 民布(保)軍에 의해서 살육과 약탈이 자행되어 호남일대는 아수라장의 현상이었다.

그리한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행적없이 살아가는 사람, 깊은 산속에 몸을 숨긴자, 바다 건너 섬으로 헤엄쳐 간 사람들로 마을마다 정적이 감돌 뿐이었다. 또한 동학농민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英學黨, 西學黨, 南學黨 등의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면서 살길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꺼진 지 4년도 못되어 혁명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흥덕에서 영학당이라 칭하는 이화삼과 동학접주였던 이이선 그리고 면의 訓任 인 송민수 등이 농민과 함께 흥덕군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즉 1898년 11월 15일에 이화삼, 송민수, 이이선, 정계술, 박기수, 채기엽 등이 농민 300명을 이끌고 흥덕현아에 침입하여 창문을 부수고 군수를 끌어내어 구타하였으며 책실과 통인들도 구타한 후 군수의 인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군수의 축출여부를 公議에 부친 결과 축출하자는 쪽으로 결정되어 군수를 경계밖으로 쫓아내고 농민들끼리 공사를 집행했다. 그런데 11월 18일 광주

관찰부의 순검대와 각면의 훈입들과 서리들이 힘을 합하여 주동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 이화삼은 태 100에 종신징역에 처해졌으며 이이선, 송민수, 정계술 등은 태 80에 징역 10년에 처해졌고 이복한, 박기수, 채기엽 등은 태 70에 징역 7년 그리고 국경순, 박우종 등은 태 40에 처해졌다.⁴⁾

홍덕군 점령상태는 서울의 만민공동회에 참여하여 연설까지 했던 이화삼과 동학접주 이이선 그리고 동학의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수백명의 농민들이 가담하여 군수를 축출하고 책살과 통인들을 처벌했다 하여 영학당과 동학농민군의 합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⁵⁾ 홍덕군 점령사건은 거사한 지 3일만에 관군이 출동하여 끝나버렸지만 대부분의 동학농민들이 동학농민 발상지 부근에서 또 다시 봉기하여 활동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1899년 4월 18일에 최영두가 그 아들 최익서와 고창의 박정집 등 32명을 거느리고 고부를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한 후 300명의 농민을 이끌고 19일에는 홍덕을 점령했고 21일에는 무장을 점령했으며 22일에는 고창을 습격하다가 우천으로 실패한 일이 있었다.⁶⁾

정읍 출신으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숨어 살던 최영두는 아들과 동지들을 거느리고 4월 18일에 고부군아를 습격하여 양총 11정, 천보총 15정, 조총 150정, 화약 2상자, 철환 1상자, 탄자 50개를 탈취하여 말로 운반해 정읍군 입암면 왕심리로 와서 이미 집결해 있던 농민 300여명을 무장시켜 19일 밤에 홍덕을 점령했다.

홍덕에서 20일 조반을 먹고 사포(현 홍덕면) 유점사 집에서 돈 100냥을 거두어 들고 하오산리(고창군 부안면) 이진사 집에서 밤을 지냈다. 다음 21일에는 고창과 홍덕의 경계인 사기점에서 저녁밥을 먹은 후 햇불을 켜들고 무장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니 그때 마침 관아가 텅비어 있어 무장읍민들이 놀라 달아날 지경이었다. 이들은 무장관아에 들어가 자리잡고 조반과 점심을 먹은 후 고창으로 향했다. 이날밤 고창으로 진격하여 수성군과 싸움을 하였는데 때마침 비가 내려 화승총을 사용할 수 없어 패하고 말았다.

최영두가 이끄는 부대는 고창에 이르기 전 10리 밖 증대점에서 별동부대가

4) 홍덕군, 평민, 이화삼 등 100여명 난입동헌사건 『사법품보』 4, p.252

5) 신용하, <해제>한말 영학당, 이화삼 등 공초 보고서, 한국학보, 1984, 여름, pp.255~260

6) 정읍 고부군 소작비류 최영두 등 28인 공안, 『사법품보』 4, pp.341~346

앞서 진군하여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읍으로 돌아왔다. 고창싸움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난산장터로 후퇴했다가 다음 23일 관군의 추격을 받아 접전을 벌였으나 패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많은 농민군이 관군에 잡혔으니 그 수가 17개군 농민 200여명에 이르렀다. 공초에 의하면 최익서는 고창성을 습격하여 이곳의 무기를 거두어 가지고 영암으로 내려가 당시 민란의 두목이었던 최읍바시와 합세하여 광주를 습격하고 이어서 전주감영을 함락한 뒤 서울에 진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고창에서 실패하였다 한다.⁷⁾

또한 주모자 최영두의 아들 최익서는 접솔이 1000여명이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관군으로부터 체포령이 내려졌던 인물이며 이번 봉기의 목적이 斥倭斥洋하여 輔國安民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영두 부자와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인 300여명의 농민군이 고부와 무장 그리고 흥덕을 점령하고 무기를 탈취한 다음 영암으로 달려가서 최읍바시와 합세하여 광주를 점령하고 전주성에 입성하여 장차 서울에 진격하려던 이들의 거사는 제2의 동학농민혁명 기도였으며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00년 4월 8일에 전년 9월부터 동학재건운동을 추진하던 익산의 김경제, 김제의 강문숙, 고부의 흥경산, 부안의 김낙철·김명중 등이 배산에서 야유회를 가장하여 대회를 갖고 일본인을 물리칠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동학의 새접주는 임피의 김준홍이고 이에 참가할 인원의 규모는 전주출신인 고문선 조직이 30여명이요 강경의 유춘산 조직이 80여명 정도였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2월 14일에 고문선이 체포되고 임피에서 김준홍, 유덕장, 김성초, 장한여, 이치옥, 이관동, 이용구 등 주모자들이 체포되었다.⁸⁾

이러한 1898년부터 1899년 그리고 1900년 등 3차에 걸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잔류세력이 반봉건의 민주화와 반외세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형장에서 또다시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고 무산된 혁명이 아니라 계속 활화산으로 내연하면서 간헐적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7) 金善明, 口招 [규장각도서 전라남도 고창군 착득난당구초 성명 죄목 병록 성책]

8) 五成山 東學徒 更起者 金準弘 등 捕捉擬律 宣告後處辦 質票事, 『사법품보』 5, pp.447~448

3. 한말 의병과 동학농민혁명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의 민주화를 지향했지만 반외세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斥倭洋을 분명히 했다. 특히 救國抗倭를 위한 9월의 재봉기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이 자신들을 의병이라 지칭했으며 혁명이 일본군으로 인해 좌절되자 외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자 조선은 일본의 독점적 지배위기에 처했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간섭으로 민비를 중심으로 친러배일세력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자 일본은 천인공노할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시해하고 이어서 단발령을 강요하여 조선인의 분노는 충천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한말의병은 丙申年(1896)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호남지방에서는 장성의 기우만, 기삼연 등이 중심이 된 의병봉기가 있었으며 나주관찰사가 도망쳤고 참서관이 피살되었으며 전남지역 13개 고을을 휩쓸었다.⁹⁾

제1차 한말의병에서 의병장들은 위정척사파의 유생들이었지만 의병의 주축은 농민들이었으니 그중의 반수는 동학농민군이었다고 매천 황현은 지적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동학농민들은 1차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의병이 해산한 후 그 일부는 화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京師金姓女 受嚴貴妃旨 祈醮于金海地 火賊馬中軍所掠
馬湖西人 甲午投東匪 丙申投義兵 之命嘯聚¹¹⁾

또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다가 1896년의 1차의병에 참가한 농민의 일부는 東匪, 火賊, 西學黨, 英學黨, 南學黨 등으로 활동하다가 1900년부터 1906년까지는 남한 일대에서 馬中軍, 孟監役 등의 조직을 가진 活貧黨으로 반봉건, 반제

9) 줄고, 한말의 민족운동-장성지방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목포대 인문과학 2집, 1985

10) 황현, 『매천야록』 건양 원년 丙申 2월

11) 황현, 전게서, 광무 3년 己亥 冬 10월

국주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¹²⁾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일본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했고 삼국간섭과 을미사변으로 인한 국제적 압력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1904년 2월에는 러일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노골적인 침략을 자행했다. 일제침략자들은 러일전쟁의 승세가 굳어지자 미국과 영국의 협조를 받아 조선의 독점적 지배를 확립했고 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끝나자 11월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조선의 국권을 유린했다.

망국적인 을사조약에 반항하는 각계 각층의 투쟁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항쟁은 의병활동이었다. 그러므로 1906년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는데 1차의병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처 때문에 부진했던 호남의병이 이때부터 전국의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당시에 가장 명망있던 면암 최익현이 호남의병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2차의병에서 최익현, 임병찬의 호남의병은 10일만에 끝났지만 그 영향과 파장은 매우 컸다.¹³⁾

그후 일제침략자들은 1907년 7월에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次官政治를 실시했고 고종을 퇴위시켰으며 군대를 해산하여 한국병합에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런데 군대해산에 저항하며 투쟁을 전개했거나 해산을 강요당했던 군인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의병대열에 참여하면서부터 3차의병은 전략과 전술의 발전은 물론 의병지역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의병대열의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의병전쟁을 감행했다.

한말의병의 중심인 3차의병은 1908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때부터 호남의병이 중핵을 담당했으니 우선 1908년에는 호남의병이 전국의병의 교전횟수의 25%, 전국의병수의 24.7%를 차지했는데 1909년에는 호남의병이 전국의병 교전횟수의 47.6%를 전국의병수의 60.9%를 차지했다.¹⁴⁾

12) 오세창, 활빈당 考 [사학연구] 21, 1959; 강재연, 반일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 『한국근대사 연구』 1982; 박찬승, 활빈당의 활동과 성격, 『한국학보』 35, 1984년 여름. 참조.

13) 줄고, 의병전쟁연구-전남 동·남지역을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23집, 1991

1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pp.295~296

그리하여 일제침략자들은 호남의병을 그대로 놔두고는 한일합병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남한토벌작전은 대구에 있는 한국 임시파견대 사령관 渡邊 소장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보병 2개 연대와 해군수뢰정대 그리고 현지의 헌병과 경찰력이 총동원되어 약 2개월 동안 전남알대와 인근 전북지역을 휩쓰는 작전으로 전지역을 포위, 수색, 토벌, 검거, 살상을 자행했는데 매천 황현은 그 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¹⁵⁾

일본군이 길을 나누어 호남의병을 수색하니 위로는 진산, 금산, 김제, 만경으로부터 동으로 전주, 하동, 남은 목포로부터 사방을 포위한 것이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순찰병을 파견하여 촌락을 수색하며 집집마다 모조리 조사하여 조금만 의심나도 문득 죽이니 이에 행인들은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이웃 마을과 왕래하지 못하니 의병들은 셋, 다섯 도망하여 사방에 흩어지며 가히 은식처가 없게 되었다. 강한 자는 적진에 돌진 싸우다 죽고 약한 자는 꾸물거리다 칼을 받았으며 점차 쫓겨 강진, 해남 땅에 이르러 갈 곳을 다하니 죽는 자가 수천이나 되었다.

남한토벌작전을 끝낸 일제침략자들은 마음놓고 한일합병을 추진할 수 있었으니 호남지방은 이 나라 최후의 보루요 의병대열에 참여했거나 이를 지원한 호남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었다. 호남의병에서 동학농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따로 분리시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의병장이나 의병의 간부는 물론 의병으로 활약한 동학농민들은 그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일제침략자들에게 표출시켰던 것이다.

특히 호남창의회맹소의 선봉장으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했던 김준과 그의 동생 김율은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했다가 피난한 일이 있으며 1908년부터 호남창의소를 주도했던 이백래의병대의 任將錄을 보면 동학당이나 영학당출신이 다수 있으며 그들의 주요 병력은 바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던 민중들이었다.¹⁶⁾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과 한말의 의병항쟁에서 그 중심이 되었던 호남인들

15) 황현, 전계서. 융희 3년 己酉 3월

16) 졸고, 한말 호남의병의 역사적 의미, 호남문화연구 22집, 1993

은 일찍이 임진왜란에서 빈사상태에 빠진 나라를 구하여 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실증시켰던 사실과 병자호란 때 의병대열에 앞장 섰던 사실이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호남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의감과 충절사상의 표출인 것이다.

4.그후의 민족, 민주운동과 동학농민혁명

1894년에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쟁취하려 했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호남인들은 혁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좌절된 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계속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0년 8월 한일 합병이 강요되어 나라가 망하자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사상은 항일독립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호남인들은 이 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하였다. 그것은 일제침략자들의 경제적 수탈이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에 집중되었기 때문도 있지만 동학농민혁명과 한말의병을 주도했던 호남인들의 반외세사상이 뿌리를 이루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9년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며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개된 소작쟁의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니 당시의 상황을 시대일보의 정순제 기자는 전남총횡기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¹⁷⁾

전남은 과거 갑오운동(동학농민혁명)과 현금의 농민운동의 진원지로서.....무산의 소작인들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약자의 무기는 오로지 단결 뿐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1920년에 전국의 소작쟁의 15건에서 전남이 5건, 1924년에 전국의 164건에서 전남이 59건 그리고 1925년에는 전국의 204건에서 105건을 전남이 차지했다.¹⁸⁾ 그러므로 농민의 분노가 응집되어 조직화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용감한 학생들이 1929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일으켜 전국의 194개교 54,000여

17) [시대일보] 1926년 6월 23일자

18) 조선총독부, [농림국. 조선농지연보] 제1집(1940). pp.8~9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당시 전국 중학생 총수가 10만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의 최대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이 호남지방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외세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¹⁹⁾

한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도 뒷받침이 되었지만 연합국승리의 부산물로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외세의 강요와 이에 빌붙은 세력들에 의해서 분단이 일어났으며 남, 북의 정권들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독재와 영구집권을 획책하자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호남인들은 반분단의 민족운동과 반독재의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게 되었다.

역대 정권들의 소외와 차별 속에서 호남인들이 받는 탄압과 불이익은 엄청났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들의 독재와 지방차별이 가속화하자 1980년에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전개해 삭막한 이땅에 민주화와 반분단의 싹을 트게 했다. 그리하여 호남인의 희생 속에서 민주화와 민족모순의 제거 운동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1987년의 6월항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본질로 하는 한국의 근대사는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정신과 역량이 소멸되지 않고 역사적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근대사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계승되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주역을 맡았던 호남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結語

1894년에 호남인이 주도하였던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지향한 근대화 운동의 서막이요 민족, 민주운동의 원동력으로 나라와 죽을 지탱했으며 역사발전을 이끌었다.

19) 줄고, 1920년대 광주지방과 학생운동-광주학생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4집, 1995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은 우발적이거나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역량의 축적과 동학사상의 접합으로 가능했으며 그것을 주도했던 호남인을 비롯한 민중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어 봉건체제를 타도하고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추진력이 되었던 것이다.

구조적 모순을 안고 등장한 조선왕조의 말기적 증상이 표출되었던 19세기 후반에는 농민항쟁도 거세게 표출되어 1862년의 임술민중항쟁때는 전국의 70여개 고을에서 농민이 봉기했는데 전라도에서는 그 절반이 넘는 38개 지방에서 농민이 생명을 걸고 일어섰던 것이다.

그러나 대원군의 등장과 함께 지역분산적이고 한시적인 민중봉기는 소강상태에 빠졌고 민씨척족정권이 무능과 부패를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농민항쟁은 그 한계성을 지닌 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한 농민봉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것이 평등사상과 斥倭洋의 민족주의 그리고 새 세상을 연다는 개혁사상을 내포한 동학의 전파였으며 그것으로 농민은 의식화되고 조직화 되었다.

그리하여 무지렁이 같은 농민은 동학의 조직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축적했으니 삼례집회와 서울의 복합상소, 그리고 보은의 집회 및 금구, 원평집회가 바로 그것이며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동학농민은 이제 새로운 투쟁방향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집단시위활동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낸 것이 호남의 동학농민이었고 혁명의 준비 또한 이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1894년 1월 고부의 농민봉기를 계기로 3월에 전라도 33개 고을의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모여 반봉건의 민주화와 반외세의 자주독립을 분명히 밝힌 후 황토현싸움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퇴하고 장성황룡에서 서울의 정예부대를 격파하여 전주를 점령해 정부와 휴전을 성립시켜 동학농민군은 호남전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통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리들인 淸軍과 이를 따라 서울에 진입한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일본의 노골적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자 남북접이 연합하여 9월에 救國抗倭의 재봉기를 했으나 일본군이 주축이 된 관군에 의해서 패퇴하여 혁명은 일단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나 수십만의 농민들이 왜군과 관군, 그리고 양반 부호들의 民布(保)軍에 의해서 살상당했지만 동학농민군의 잔류자들은 기회있는 대로 투쟁을 전개했고 재기운동을 도모했으니 그것은 1898-1900년까지

지 혁명의 발상지에서 있었던 己亥井邑農民蜂起와 再起運動이었다.²⁰⁾

또한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을 추진했던 농민군들은 일본 때문에 그들의 뜻이 좌절되고 침략이 노골화되자 한말의병에 투신하여 일제침략자를 물리치고 자주독립을 이룩하려 했다. 을사조약과 정미 7조약 이후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시키며 고종을 퇴위시키자 본격적인 의병항쟁을 전개했는데 군대해산 후의 제3차 의병에서 호남의병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에서 호남인들이 보여주었던 정의감과 충절의 재확인이었다. 일제 침략자들은 호남의병을 토벌하는 남한토벌대작전을 끝낸 후 마음 놓고 한일합방을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호남지역은 이 나라 최후의 보루요 의병으로 활동했거나 이를 지원한 호남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었다.

동학농민혁명과 한말의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호남인들은 일제시대에는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니 3·1운동에의 적극 참여와 소작쟁의 투쟁,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모두 호남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모두 호남정신의 계승·발현인 것이다. 또한 분단이후의 반독재, 반분단 활동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은 호남인들이 앞장섰으니 박정희 정권 및 신군부에 대항한 치열한 항쟁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의 서막이요 민족, 민주 운동의 원동력이라 볼 때 혁명을 주도했던 호남인들은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근대와 동질성을 가진 현대사에서도 그 주역을 맡았으니 한국의 근, 현대사는 동학농민혁명이 주도했고 그 중심은 바로 호남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主要論文>

- ◆ 韓末의 民族運動(목포대 인문과학 2집, 1985)
- ◆ 義兵戰爭研究(국사관논총 23집, 1991)
- ◆ 韓末湖南義兵의 歷史的 意味(호남문화연구 22집, 1993)
- ◆ 1920年代 光州地方과 學生運動(국사관논총 64집, 1995)

20) 최현식, 기해정읍농민봉기와 재기운동,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